

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 일시

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

보도자료

홍보팀 김효정 팀장

062-715-2061 / 010-3644-0356

담당

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

062-715-2062 / 010-2008-2809

자료 문의

지스트 홍보팀

062-715-2061~2063

지스트 노도영 교수, IBS 새 원장으로 선임

- 지스트 물리광과학과 노도영 교수, 2019년 11월 22일부터 5년간 IBS 원장직 수행
- 1995년 지스트에 부임 후, 국가 과학기술인재양성 및 X-선과학기술 발전에 기여

- GIST(지스트, 총장 김기선) 물리광과학과 노도영 교수(56)가 기초과학연구원(IBS)의 새 원장으로 선임됐다.
- 노도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과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1995년에 지스트 교수로 부임하였다.
 - 주요 경력으로 ▲2012~2015년에 지스트대학장을 맡았으며, ▲2015~2017년 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. 현재 ▲미국 Argonne 국립연구소 CNM Proposal 평가위원회 위원 ▲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심의위원 ▲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▲한국물리학회 특임 부회장(윤리위원장) ▲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▲지스트 극미세초고속X-선과학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.
- 노 교수는 지스트 대학 제2대 대학장을 수행하며 지스트 학사과정의 토대를 완성해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썼다. 연구 실적으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인 자유전자레이저를 활용한 신기술인 결맞은 X-선회절이미징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연구진에게 나노-바이오 이미징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공해 X-선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.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첨단 융합전문위원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수립에 기여하였다.

- 수상실적으로 과학기술부 장관표창(2002년)과 대통령 표창(2007년), 지스트 교육상(2010년, 2014년), 심계과학상(포항가속기연, 2010년), 대한민국 과학기술 포장(2012년)이 있다.
- 2011년 11월 설립된 IBS는 연간 5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유일한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, 2012년 9개 연구단으로 출범해 7년만에 연구단만 30개로 늘어났다. 현재 연구그룹 71개, 총 연구인력은 1,680명이다. 노도영 신임 원장의 임기는 5년이다.
- 노도영 교수는 “IBS는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산업계 등에게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지식 플랫폼이 될 것”이라면서, “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지식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 기여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지스트 캠퍼스 내 IBS ‘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’이 2012년 12월에 발족되어 운영중이다. 지스트는 30펨토초의 4PW(페타와트) 레이저를 개발하여 페타와트의 초고출력을 내는 레이저의 규모도 크게 소형화하였다. 4PW(페타와트)의 출력을 내는 이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는 현재 최고 출력을 내는 레이저로,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이 페타와트 레이저 시설을 기반으로 초강력 레이저 펄스와 물질의 상호작용 물리를 탐구하여 이를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 <끝>

[사진설명]



▲지스트 노도영 교수 증명사진